東大時報

發行人 白性都
編輯兼印刷人 崔鳳守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1685·1686·1687
(週間) 月一部定價 貳百五十圓

# 知性人의 豪氣百出

## 第一回校內雄辯大會盛況

### 入賞者에 銀盃等授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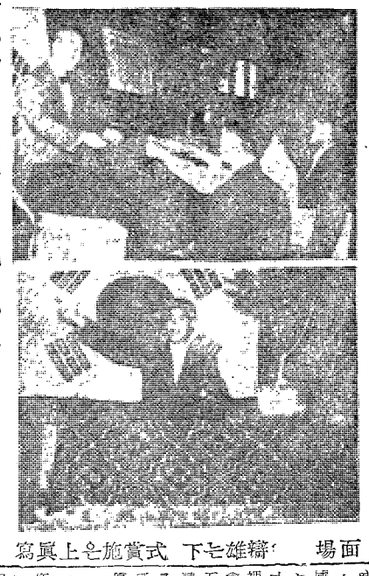
主 政治學會 催

十日 上午十一時부터 루터館木으로 뒤덮인本大學 第一講堂에서 열려진 法政大學 政治學會主催 本社後援 第一回 校內雄辯大會는 二十一名의 演士가 始終一貫 愛國에 빅찬 熱辯으로 數많은 聽衆의 拍手喝采 세례를 받으며 下午三時에 閉幕!。이어 嚴格한 審査을 거친 入賞者三名에게 總長賞및 副總長賞 그리고 學長賞이 白總長으로부터 授與된다음 總長訓話가 二十餘分間에 걸쳐 行하여졌다

◇:이날 第一回雄辯 大會는 學會長人事에서 政治學科主任 金基洙敎授로부터 審査및採點方法에 對한 說明이있은다음雄辯으로들어갔다 이미 지난 一日도써 應募하여 原稿審査에合格된 二十一名의 演士는 知性人으로써의 기탄없는 批判을 吐露하여 數많은 聽衆의 歡呼와 拍手喝采을 모은가운데 이번大會의 意義를 드높게한바있다

◇:下午三時에 幕!。 내린 이날大會의 審査委員金基洙, 吳瑞根兩敎授는 審査結果를 발하는가운데 學生들이 爲政者의 批判을 加하는 것은 「멘탈」한內容과 節調로써 聽衆에게 感한것을 指摘하면서 雄辯은 웅바지 않고 지나치게 「센치」한 主張이 두렷하게傳達될수있는 方法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注意를 喚起한바 있다

◇:한편 이날大會는 白總長으로부터 入賞者 副賞 三名에게 賞狀과 總長賞 그리고 學長賞이 授與된다음 白總長의 訓話가 二十餘分間에 걸쳐 行하여졌다



雄辯을 하는 上眞의 寫 式賞施 下 場面

## 博士 및 名博學位授與 大學指定

### 本大學은 (哲學·文學·經濟學)等四部門

文敎部公示第三十二號에依하면博士및名譽博士學位를授與할수있는十二個大學校와그種別및審査規定을明示하고있는데本大學에는四個部門이이에認定되었다 지난 五月三十日字로 發表된前記公示는 從別에 同部에서 發表한바있는 公示第十三 十五號및 第十八號를 同日字로 廢止하여 이번學位 授與에 依하여 取하여진 大學院設置規定에 依한 경신데 다음은 이  明記하고있는 學校와 學位種別이다

서울大(文學, 哲學, 理學, 醫學, 經濟學, 法學, 工學, 農學, 藥學以上十種) △延世大(文學, 哲學, 經濟學, 法學, 工學, 醫學以上六種) △高大(文學, 哲學, 經濟學, 法學以上四種) △成大(文學, 哲學, 經濟學, 法學以上四種) △慶北大(文學, 理學, 醫學, 農學以上四種) △全北大(哲學, 經濟學, 法學, 農學以上四種) △中央大(文學, 經濟學, 法學, 理學, 醫學以上二種) △朝鮮大(經濟學, 法學以上二種) △釜山水産大(理學以上一種) △梨大(文學, 哲學, 法學, 醫學以上七種) △東國大(文學, 哲學, 法學, 經濟學以上四種) △高大(文學, 哲學, 經濟學, 法學以上四種) △慶北大(文學, 理學, 醫學, 農學以上四種) △全北大(哲學, 經濟學, 法學, 農學以上四種) △中央大(文學, 經濟學, 法學以上二種) △朝鮮大(經濟學, 法學以上二種) △釜山水産大(理學以上一種) △梨大(文學, 哲學, 法學, 醫學以上七種) △東國大(文學, 哲學, 法學, 經濟學以上四種) △高大(文學, 哲學, 經濟學, 法學以上四種) △成大(文學, 哲學, 經濟學, 法學以上四種) △慶北大(文學, 理學, 醫學, 農學以上四種) △全北大(哲學, 經濟學, 法學, 農學以上四種) △中央大(文學, 經濟學, 法學, 理學, 醫

# 數學과 科學

## 一主로 新入生을爲하여一

趙 殷 澤

數學과 科學과의 關係를 생각함에있어 먼저서 簡單하게 科學이란 意義를 分明히 하지않으면 안된다 오늘날우리가 科學이란말을 使用하고있다 이런 事案을 經營함에도 科學的運營이라느니 施設이 科學的으로 갖되었느니 乃至는 사람을判斷하는데까지 科學的眼鏡을 갖었느니한다 그러면 이科學的 또는科學이란 말은 어떠한意味를 갖인것인가 現代人이 使用하는말과 古代人이 使用하는 말의 差異가 어떤것인가를알아보자 元來 科學이란 羅甸語는 論理的知識만을 意味하는것이 않이고 物件을 만드는 「솜씨」를 意味한다고 하였다 따라서羅甸語로써 科學者라하면 物件만드는 솜씨가 훌륭한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中世紀부터 漸次 이本來의 意味가 變化하여 純粹한 知的方面을 드러내게 되여 그러므로 이時代에는 哲學도 또 한 科學의 一部分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近世에 와서는 諸般科學의硏究가 더욱精細를 極하게됨으로 只今까지 科學의 一種으로 看做하고있든 哲學의 性質과 그 硏究方法이 다른 科學과 大異함에 判明됨으로 드디어 科學과哲學은 各各 分離하여 서로對立한곳에 서게되는 결과 生하였다 곧 科學은 經驗 및 推理에 依하여 보이는 아람스 「아주리 太陽界에는 未知의遊星이 아직하나 發見되지않은채 있다는 이로 말미암아 그 고와反 統的으로 硏究하는것이 哲學은 科學의 基礎 [illegible]

(17)

退耕 權相老

一四五

아침비 오더니
늦은後는 바람이라
千里 萬里길에
風雨는 무삼일고
두어라 黃昏이 더딜거니 쉬어간들어떠리
(申 欽)

明來寒雨晚來風
千里長程風雨中
自此黃昏猶有間
及時休息莫匆匆

一四六

香梧山 해진後에
二妃는 어데간고
함께 못축은들
설음이 어데던고
千古에 이못잊기는
대숲인가하노라
(申 欽)

香梧山色已西沈
一妃淚跡何處尋
未能從死無窮恨
千古相知只竹林

一四七

寒食 비온밤에
불빛이 다되첫다
無情 花柳도
때를알아 피엇거던
어데다 우리님은
가고 아니오시는고
(申 欽)

寒食前宵雨正肥
春光無處不生輝
亦若恩人가하노라
(申 欽)

功名富貴是何物
野麗無疎不足云
屬臥田園樂居友
百年安過亦君恩

一四九

력까매 기나거저르나
기동이 기우나기로나
數間 茅屋을
功名이 그무었고
(申 欽)

桂欲折斜椽欲朋
數間茅屋淡如僧
客來傍人須莫笑
滿山蘿月是吾朋

一四八

無情花柳猶如節
何事郎君去不歸
어즈버 滿山蘿月이
다데빗인가하노라
(申 欽)

一五〇

넷가에 해오라비
무삼일로서 있는고
無心한 저고기를
여어무삼 하려난가
아마도 한홍에있거니
잊어슨들어이리하리
(申 欽)

江邊白鷺立何爲
魚自無心渠自窺
彼此同流水界相忘盛日莫相猜

一五一

어일사 제鵬鳥야
누나 제鷦鷯야
九萬里 長天에
무삼일 을마간다
길형에 뱁새작새는
못내슬겨하더라
(申 欽)

吁嗟鷦鷯鷦鷯塞笑
九萬長天何事營
鵲鷦亦有逍遙樂
決起蓬蒿仨並飛

退耕 權相老

작은들 숫지마라
어즈버 滿山蘿月이
다데빗인가하노라
(申 欽)

桂欲折斜椽欲朋
數間茅屋淡如僧
客來傍人須莫笑
滿山蘿月是吾朋

## 數學과 科學

### 一主로 新入生을爲하여一

趙 殷 澤

數學과 科學과의 關係를 생각함에있어 먼저 數學이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우리가 經驗하도록 하기爲하여 形式概念을 豫想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數의 概念은 단순한形式에 지나지 않으로 그自身에있어서 活動하는것이 아니고 그活動을 促進하기 爲하여서는 經驗을 必要가 있다 數의概念을 意識하기 때문에 經驗을 기다리지 않으면안된다 그 것을 하여서 經驗을 統一하는 形式을 必要로써 이러한 思考하는 感性에서 分離하면 經驗的 直感이 된다 다음은 空間概念도 數와같이 形式이다 마치 堤防으로 水車를 돌리고 電氣를 發生하기爲하여는 그것을 開放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開放하는것이 水車를 돌리고 電氣를 發生하는 動力이 되는 것과 같이 數와 空間의 關係를 갖인 것이 數學의 根本的 基礎가 되는 것이다 그 것을 形式이라 하는 思惟의 形式이다 觀覺 觸覺 運動 感覺 等은 空間의 屬性을 意識하는 感覺을 統一하는것 主要한感覺이다 그러므로 數學硏究의 根本이 되는 것은 空間의 屬性을 硏究하는 感覺을 統一하는것 이 數學的 思惟의 形式이다 그러므로 數學은 經驗을 超越하는 純然한 新知識을 얻는 學問이다 그러나 數學은 經驗을 떠나서 獨立하여 存在할수 없다 數學硏究의 本體는 經驗을 떠나서 獨立하여 存在할수 없다는 것은 有名한 「칸트」가 說한바이다 다시 말하면 空間의 屬性은 感覺에 依하여서가 아니고 感覺을 環因으로해서 生起하는 思惟의 形式이다 觀覺 觸覺 運動 感覺 空間의 屬性을 意識하는 感覺을 統一하는것 主要한感覺이다 그러므로

# ★石炭과 石油의 世紀★

二十億의 人間의 勞動과 八千萬匹의 動物의 勞役은 一年間 一千一百萬億馬力의 動力에 比擬하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全世界가 움직이고 있는 各工場의 機械는 이 程度로서 充當할 수 없는 그 以上의 動力이 要求되고 있다 그 動力의 根源은 水力 그리고 大部分 石炭과 石油에서 얻고 있는 것이다 世界의 石炭年産은 一八〇〇年의 一、五〇〇萬톤에서 一九〇〇年에는 七億톤 近來에와서는 約 一三億톤으로 發展하고 그中 約 八十%가 動力으로 使用되고 있다 近數十年來 人口는 점점 密增하고 生活은 近代化하고 機械는 더많은 動力을 要求하게 된것이다 即 石炭과 같은 地位에서 石油가 活躍하기 始作한것이다

石油의 年産量을 보면

一八八〇年 三九〇萬톤
一九〇〇年 二〇〇〇萬톤
一九三九年 二億八千五百萬톤
一九四六年 三億七千六百萬톤
一九四七年 四億一千萬톤

※以上統計는 Henry Peyret의 『世界의 工業原料』中에서※

그 大部分은 重油機關과 디-젤機關의 動力源으로서 消費된 것이다

特히 美國의 石油動力의 發展은 一九四一年 約 二千萬馬力에서 一九四七年 前半期에는五千一百萬馬力 以上으로 增加하고있다 그러나 全世界가 언제나이와같은 石炭 石油를 地下資源에서 充當해낼수있느냐하면 그렇지 않은것이다 石炭 石油는 그 埋藏量이 그다지 많지 않은것이다 石炭은 石油보다 훨씬 많은것이다 石炭 石油를 利用할수있는 動力에 代價한다고 하는 方法에는 蒸氣機關이 發明되었고 石油動力을 利用하는 方法에는 內燃機關이 發明되었다 그러나 오늘 全世界가 資源에서 充當해낼수있느냐하면 그렇지 않은것이다 이제 그 밑지지않은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자취를 감추어버리기 않으면 안될 날의 限界가 있는것이다 生産量의 增加率보다 消費量은 점점많아지고 그 一部는 水力으로 或은 合成燃料로 補充되었으나 將來가 걱정하게 보이는것이다

石油의 無盡藏의 寶庫라고 부르는 中東의 埋藏量은 百億톤이라고 推測하고있으나 今日世界가使用할 二十年分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全世界가 가진 石炭石油의 資源은 現在의狀態로서 消費한다면 앞으로 한世紀를 더가지 못한것이다

## ★原子의 世紀★

여기 이問題를 打開해줄새로운 革命이일어났다 水力도아니고 合成燃料도않인 即物質이가진 原子力 (核에너-지)의動力源이다 이는 이미 그正體를 나타내기 始作한 實驗臺에서 벗어나 同題가 되었다 太陽에너-지의秘密 所謂 水素爆彈에너-지를 어떻게 動力化하느냐? 即 第二의 原子力 舞臺가 가까워져가고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H. G. WELLS 는 『人間은 神에게 먹을것을 만들것이다』고 말했지만 二十世紀의 『우로매두스』는 『人間은 太陽을 創造할것이다』라고 말할것이다

一九三九年六月 國聯原子力委員會가 經足되고 各國의 原子力 研究가 繼續되고 있다 一九四二年十二月 『시카고』에서 設計된 原子工業用原子爐는 工率 二五乃至 三十%였다 戰爭前 全世界의 우라늄資源은 헛된 方法으로 後退하는수가 있었고 石油動力을 利用하는 方法은 蒸氣機關이 發明되었고 石油或은 電油或은 디젤機關이 發明되었고 原子力을 利用하는 方法은 原子爐에서 發見되었다 그러나 第一의 原子動力의 開拓은 이러한 迷路에서 當面하고 있는 障碍를 뚫고 前進하여 나아가야 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運動에 參加한 몇분의 學者들이 있다 『우라늄』 資源의 探鑛 및 利用할수있는 動力에 關하여 討議하고 研究하고 地球의 將來 운명을 해결하는 우리들의 後孫을 爲해서 적극 경주했다.

現在 探掘中에있는 『우라늄』의 含有量은 앞으로 數世紀間의 『우라늄』 資源의 終末이 오기 前에 人類는 또다른 方法으로서 『우라늄』이나 『토륨』 같인 다른 元素에서 原子에너-지를 利用할수있는 動力을 發見해낼것이다 그正體는 原子動力의 發展 增殖爐의 原理는 擊香著 自然科學概論 169.P. 參照)

다시 말하자면 全世界의 工場의 電光 電熱 輸送機關의 모든 動力源 (四兆三千億키로칼로리) 은 우라늄 一貨物列車에서 얻을 수있는 原子力으로 充分한것이다

一九四六年六月 國聯原子力委員會가 經足되고 各國의 原子力 研究가 繼續되고 있다 一九四二年十二月 『시카고』에서 設計된 原子工業用原子爐는 工率 二五乃至 三十%였다 戰爭前 全世界의 우라늄資源은 헛된 方法으로 後退하는수가 있었고 石油動力을 利用하는 方法은 蒸氣機關이 發明되었고 石油或은 電油或은 디젤機關이 發明되었고 原子力을 利用하는 方法은 原子爐에서 發見되었다 그러나 第一의 原子動力의 開拓은 이러한 迷路에서 當面하고 있는 障碍를 뚫고 前進하여 나아가야 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運動에 參加한 몇분의 學者들이 있다 『우라늄』 資源의 探鑛 및 利用할수있는 動力에 關하여 討議하고 研究하고 地球의 將來 운명을 해결하는 우리들의 後孫을 爲해서 적극 경주했다.

現在 探掘中에있는 『우라늄』의 含有量은 앞으로 數世紀間의 『우라늄』 資源의 終末이 오기 前에 人類는 또다른 方法으로서 『우라늄』이나 『토륨』 같인 다른 元素에서 原子에너-지를 利用할수있는 動力을 發見해낼것이다 그正體는 原子動力의 發展 增殖爐의 原理는 擊香著 自然科學概論 169.P. 參照)

※ R. Caldar, Profile of Science (1951) 에서

그러나 近來 새로운 方法論 即에 人類는 또다른 方法으로서 『우라늄』이나 『토륨』 같인 다른 元素에서 原子에너-지를 利用할수있는 動力을 發見해낼것이다 그正體는 原子動力의 發展 增殖爐의 原理는 擊香著 自然科學概論 169.P. 參照)

※ WENDT; Atomic Energy and the Hydrogen Bomb. (1950) (崔奎南譯) 그리고 筆者 自然科學概論 (150P—166P) 參照

× × ×

一九四二年十二月 美國시카고 大學에서 人類가 最初로 完成한 原子爐의 記念碑에 이런 말이 쓰여있다

ON DECEMBER 2. 1942 MAN ACHIEVED HERE THE FIRST SELF-SUSTAINING CHAIN REACTION AND THEREBY INITLATED THE CONTROLLED RELEASE OF NUCLEAR ENERGY.

## ★結 論★

原始時代의 人間은 自己의 勞動으로 일을하여 그 나름에는 다 같인 動物의 勞役으로서 勞動에 補充하여왔다 歷史는 보로고어 먼時期에 와서 人間은 불을發見하고 機械을 發見하고 近來 動力을 內包하고 있는 基礎위에 기계 대량생산 (Mass production) 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第一의 原子動力의 試驗期가 어느程度 進展되어야만 다음 課題가 自然 開拓되어 기계 대량생산 (Mass production) 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第一의 原子動力의 試驗期가 어느程度 進展되어야만 다음 課題가 自然 開拓되어 기계 대량생산 (Mass production) 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第一의 原子動力 試驗의 方法이 問題인것이다 即 그 方法이란 自己消滅않인 進化만이 唯一의 길인것이다 왜냐하면 自己消滅이란것은 人間이란知性이 建設해온 物的 心的 破壞이기때문이다 그結果는 過去로 後退하는 그 뿐이지 完全滅亡이냐의 길밖에없는것이다 다만 原子力의 平和的利用만이 다음文明에 進化해갈 糧食이며 前提가되는 原子爐에서 發見되었고 原子力 動力은 第二의 原子動力 發見의 基礎위에

# 暮景

文理大 國文科 閔泳禧

○月○日
오늘은 노랑 리본。
○月○日
『정아』에게서 편지이 보이는 언덕에서 두시간의 散策:

언제나 국국히 말이적고 표정이 굳어서두꺼비같이 친구의 수첩을 드륵걷어 해보고 내딴엔온 친구의 수첩을 친구였읍니다 언제가 우연히 자기의 옷은일이있음니다 그도 그럴것이 그렇지만도 옷은일이 있음니다 그도 그렇게보면 전연 그렇지만도 않은)의 수첩에서 실없이 웃어봄은 때숫한 분량의 이런메모가 무이 별나게 재미있다는 것 보다도 이편지 그딱딱한 얼굴을 생각하고 신기해 했던 것입니다 정말은 그수첩의 메모 란(欄)의 대부분이 위인의 경구(警句)나 강연회순서따위로 메꾸이저있어야 했을텐데 아니 아니라 그에겐 이런 수첩을지니고있는것조차 이상 스러울 지경이기도했지만 어쨌든 남말리 가깝게 지나는 친구의요즘생활이 그저 평범한것이 아닐께라고 혼자 멋대로 해석해두기로 했던것입니다 그때서당장 수첩을 친구에게 드리대고 내게 밀어노라고 한바탕 시위를 해봤지만 오히 그렇듯이 친구는 그날 빙긋이 웃고만 말았읍니다 그후 장과비때문인지 어쩌 돌처럼 친구를 맞나보기가 드물었읍니다 그러던 바루 어제저녁에 강의실에서 나온 꼬집어내었읍니다 웃밖에 강의실에서나온 시간이 있다해도 모두 어이 없다는 듯이 웃기만 하고만 여겼던것입니다 그날따라 벌나게 빙과점 극장 다방 이런곳을 몇이나 거쳐서 학교뒤 언덕에 오른것은 어느 새 어둠이 어둠낮이 마악 지르려드는 무렵이었읍니다

『왜 하필 여길오니?』

친구는 내게 알미울정도로 그저 말이없었읍니다 그눈이없는 잠자 앉아서 우리는 맞은편 비집고 자리를 잡아 앉아서 그렇듯 언덕비탈에 층을지어 오줄조줄 박힌 집들에 저절로 시선이 갔읍니다 커텐을 드리운 창문이 보이는 양옥집 기와집 멋없이 오똑히 서서 판자집같이적으나 키가큰 이층집 천막 낡이고 좁은골목엔 아이들소리 장수들소리뿐 딱이는소리 방울소리로 서글서글한 황혼풍경이었읍니다

『난 이모든게 꼭 이심일동안을 겨의 날마다 여길 찾어왔댔어。 갑갑해서가 아니라』

—처음엔 역시 갑갑해서였지만 차차 그게 아니었단말야, 여기 앉았으면 눈은 저쪽언덕 바깨 바라본곳이없게 나 먹어이거든, 저걸봐, 보이지。 저숫한 집들과도 날마다 움직이지 않고서서는 백이지못하는 저이들을 보지。 좁 생각해본일이있니 넌—!』

『저 좁력의 포그만집에 젊은 청년이 나있지。 그가 거기살기때문에 하루 세때 먹는 「에너지」와 어느곳보다 아무래도 머 따뜻한 늙은어머니와 어린누이와함께들길 단란(團欒)을 먹도밥을 씻들고 하루두번 저사 힘을 드나들어야하는 시간과 몽땅바쳐야하는 계거든 : : 마치 양옥집들창에서 발붓 흘러나오는 피아노소리가 어떤 목적이있고, 늙은고 리대금업자가 좋은 러가 아까워서라도 맛없 해애안맞는 이종판자집을 짓고, 저천막안 의 얼굴, 부척한 아가씨가 밤만되면 같은회 장을하고 으슥한거리를 헤메다니는것이 적어도 모두가 뭣때문에, 무얼 위해서인것같이 — 』친구는 눈아래로처쪽 푸드스럽한 시사 장을하고 으슥한거리를 헤메다니는것이 적어도 모두가 뭣때문에, 무얼 위해서인것같이 — 』친구는 눈아래로처쪽 푸드스럽한 시사 즐생활이 그저 평범한것이 아닐께라고 혼자 멋대로 해석해두기로 했던것입니다 그때서당장 수첩을 친구에게 드리대고 내게 밀어노라고 한바탕 시위를 해봤지만 오히 그렇듯이 친구는 그날 빙긋이 웃고만 말았읍니다 그후 장과비때문인지 어쩌 돌처럼 친구를 맞나보기가 드물었읍니다 그러던 바루 어제저녁에 강의실에서나온 시간이 있다해도 모두 어이 없다는 듯이 웃기만 하고만 여겼던것입니다 그날따라 벌나게 빙과점 극장 다방 이런곳을 몇이나 거쳐서 학교뒤 언덕에 오른것은 어느 새 어둠이 어둠낮이 마악 지르려드는 무렵이었읍니다

『왜 하필 여길오니?』

친구는 내게 알미울정도로 그저 말이없었읍니다 그눈이없는 잠자 앉아서 우리는 맞은편 비집고 자리를 잡아 앉아서 그렇듯 언덕비탈에 층을지어 오줄조줄 박힌 집들에 저절로 시선이 갔읍니다 커텐을 드리운 창문이 보이는 양옥집 기와집 멋없이 오똑히 서서 판자집같이적으나 키가큰 이층집 천막 낡이고 좁은골목엔 아이들소리 장수들소리뿐 딱이는소리 방울소리로 서글서글한 황혼풍경이었읍니다

『난 이모든게 꼭 이심일동안을 겨의 날마다 여길 찾어왔댔어。 갑갑해서가 아니라』

—처음엔 역시 갑갑해서였지만 차차 그게 아니었단말야, 여기 앉았으면 눈은 저쪽언덕 바깨 바라본곳이없게 나 먹어이거든, 저걸봐, 보이지。 저숫한 집들과도 날마다 움직이지 않고서서는 백이지못하는 저이들을 보지。 좁 생각해본일이있니 넌—!』

『저 좁력의 포그만집에 젊은 청년이 나있지。 그가 거기살기때문에 하루 세때 먹는 「에너지」와 어느곳보다 아무래도 머 따뜻한 늙은어머니와 어린누이와함께들길 단란(團欒)을 먹도밥을 씻들고 하루두번 저사 힘을 드나들어야하는 시간과 몽땅바쳐야하는 계거든 : : 마치 양옥집들창에서 발붓 흘러나오는 피아노소리가 어떤 목적이있고, 늙은고 리대금업자가 좋은 러가 아까워서라도 맛없 해애안맞는 이종판자집을 짓고, 저천막안 의 얼굴, 부척한 아가씨가 밤만되면 같은회 장을하고 으슥한거리를 헤메다니는것이 적어도 모두가 뭣때문에, 무얼 위해서인것같이 — 』친구는 눈아래로처쪽 푸드스럽한 시사 즐생활이 그저 평범한것이 아닐께라고 혼자 멋대로 해석해두기로 했던것입니다 그때서당장 수첩을 친구에게 드리대고 내게 밀어노라고 한바탕 시위를 해봤지만 오히 그렇듯이 친구는 그날 빙긋이 웃고만 말았읍니다 그후 장과비때문인지 어쩌 돌처럼 친구를 맞나보기가 드물었읍니다 그러던 바루 어제저녁에 강의실에서나온 시간이 있다해도 모두 어이 없다는 듯이 웃기만 하고만 여겼던것입니다 그날따라 벌나게 빙과점 극장 다방 이런곳을 몇이나 거쳐서 학교뒤 언덕에 오른것은 어느 새 어둠이 어둠낮이 마악 지르려드는 무렵이었읍니다

『왜 하필 여길오니?』

친구는 내게 알미울정도로 그저 말이없었읍니다 그눈이없는 잠자 앉아서 우리는 맞은편 비집고 자리를 잡아 앉아서 그렇듯 언덕비탈에 층을지어 오줄조줄 박힌 집들에 저절로 시선이 갔읍니다 커텐을 드리운 창문이 보이는 양옥집 기와집 멋없이 오똑히 서서 판자집같이적으나 키가큰 이층집 천막 낡이고 좁은골목엔 아이들소리 장수들소리뿐 딱이는소리 방울소리로 서글서글한 황혼풍경이었읍니다

『난 이모든게 꼭 이심일동안을 겨의 날마다 여길 찾어왔댔어。 갑갑해서가 아니라』

—처음엔 역시 갑갑해서였지만 차차 그게 아니었단말야, 여기 앉았으면 눈은 저쪽언덕 바깨 바라본곳이없게 나 먹어이거든, 저걸봐, 보이지。 저숫한 집들과도 날마다 움직이지 않고서서는 백이지못하는 저이들을 보지。 좁 생각해본일이있니 넌—!』

『저 좁력의 포그만집에 젊은 청년이 나있지。 그가 거기살기때문에 하루 세때 먹는 「에너지」와 어느곳보다 아무래도 머 따뜻한 늙은어머니와 어린누이와함께들길 단란(團欒)을 먹도밥을 씻들고 하루두번 저사 힘을 드나들어야하는 시간과 몽땅바쳐야하는 계거든 : : 마치 양옥집들창에서 발붓 흘러나오는 피아노소리가 어떤 목적이있고, 늙은고 리대금업자가 좋은 러가 아까워서라도 맛없 해애안맞는 이종판자집을 짓고, 저천막안 의 얼굴, 부척한 아가씨가 밤만되면 같은회 장을하고 으슥한거리를 헤메다니는것이 적어도 모두가 뭣때문에, 무얼 위해서인것같이 — 』친구는 눈아래로처쪽 푸드스럽한 시사 즐생활이 그저 평범한것이 아닐께라고 혼자 멋대로 해석해두기로 했던것입니다 그때서당장 수첩을 친구에게 드리대고 내게 밀어노라고 한바탕 시위를 해봤지만 오히 그렇듯이 친구는 그날 빙긋이 웃고만 말았읍니다 그후 장과비때문인지 어쩌 돌처럼 친구를 맞나보기가 드물었읍니다 그러던 바루 어제저녁에 강의실에서나온 시간이 있다해도 모두 어이 없다는 듯이 웃기만 하고만 여겼던것입니다 그날따라 벌나게 빙과점 극장 다방 이런곳을 몇이나 거쳐서 학교뒤 언덕에 오른것은 어느 새 어둠이 어둠낮이 마악 지르려드는 무렵이었읍니다

『왜 하필 여길오니?』

# 詩와科學

## 念信 詩와 科學 (下)

I·A·리차즈

李哲浩 譯

科學과 自然의中立化가 확대되면 따라서그 일은 아주힘이드는 危險까지 招來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癡藥에 比할 어려가지 批評家의 努力이 경겨나는것이다

그리하여 從來의 詩的眞理는 比喩的이며象徵的이라든가 혹은 直接的인 體通知識을 넘어서는 直觀의 眞理로서 혹은 科學이 짜내는 독같은 眞理의高以의形式 이라는등 어러가지로 보았다 詩를 科學의 指否 또는 가 遮避할수없는 一種의同意이건 많은 사람들의 反應은 단 하나만을 의식적으로 企圖는 아주 온하다

그러나 여기에 對한 反應力을 아주 약하게 만드렀다 흰어서 부러 質驗室에 자단 덫덫科學習을은 이러한 習慣에 젖지않었다는 그들은 大餘 그러나 참된 關心을 기울이지 않었다 習慣에 젖은사람은 이自然의 中立化를 認識하는 同時에 詩와 해여지는것이다

그들은 막연하나마 어떤 信念에依해서 自己 비를의 反應을 언제나 갖고왔기 때문에 그부 렇하지못한 支持가 살아지같에 그들은 더以 上 反應할수 없었던것 이다

그 해아릴수없이 많은 事物에 對한 그들 의 態度는 過去에는 너무 强制되었고 또 命水에 對한渴望等은 우리에게 生活敬虔의 眞理가 그것은 아직도